



진안군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 토론회 가져

진안군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근)는 12일 '진안읍 주민자치 발전'을 주제로 4개의 분임별로 나눠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임별 주제는 기획홍보분과(1분임)는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를 배려한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대해 토론했고 이우석 분과장이 발표를, 자치분과(2분임)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고 분과장 최주연씨가 발표했다.

또한 문화예술분과(3분임)는 '주민자치(위원회)회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고 신규섭 분과장이 발표하고, 환경복지분과(4분임)는 '지역현안 해결 등 자치기능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지속적·주기적 교육, 워크숍' 등에 대해 토론했고 원철연 분과장이 발표했다.

박석근 위원장은 "SNS,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활동사항, 미담 사례 등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이런 내용들을 지역의 주민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성덕면,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온인석)는 지난 12일 시정 홍보 및 면정 발전을 위해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명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주요 현안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민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서명운동, 고향사랑기부제 및 내지역 김제 주소갖기 캠페인 등에 대해 주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면민의 날 개최와 관련하여 주요 행사 프로그램, 주민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022년 성덕면 시민소통의 날 건의사항이었던 성덕면 카페(성이랑 덕이랑)를 7월 말에 조성·개소함에 따라 주민소통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온인석 성덕면장은 "우리 면의 주축인 기관·사회단체장들의 협조 없이는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며 "함께 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각 단체 간의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으로 성덕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 중국 대학 연수생 '캠투어' 인기

대표 관광지 고스락·글로벌 문화관·보석박물관 견학... SNS 통해 익산 홍보

익산시가 도내에서 연수 중인 중국 대학생 대상 캠투어 어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전주대학교와 연계한 중국대학 단기 연수생 60여 명이 익산의 대표 관광지를 견학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투어는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익산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대학 연수생들이 개인 SNS에 후기를 올려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익산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전북 최초 글로벌 전시체험시설인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세계 문화와 역사전시관을 관람하고 '다문화 의상' 체험과 한국 전통 자개를 이용한 '전통 공예'를 체험했다.

또한 고스락에서 유기농 전통 발효식품과 한식을 맛보았고 보석박물관에서 다양한 보석 종류와 진귀한 보석공예 작품을 감상하며 익산의 문화관광자원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알게 됐다.

캠투어에 참여한 중국 대학생은 "익산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자연의 조화가 느껴지는 곳"이라며 "이번 기



회를 통해 알게 된 익산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SNS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꼭 추천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의 글로벌한 관광자원을 통해 다문화적인 향유와 K-컬처를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며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류 문화 경험을 선사하며, 익산시의 문화적인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임실군, 강진면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전달

임실군이 강진면 복지회관에서 이민숙 부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강진파출소장, 자율방범대원,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현대 스타리아)을 전달했다.

강진면은 섬진강을 끼고 흐르는 자연경관과 호국원 및 필봉농악전수관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생활인구의 이동이 매우 큰 지역이지만, 그동안 순찰차가 없어 면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양덕모 방범대장은 "이번에 임실군의 보조금과 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순찰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치안 공백 해소와 주민 생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민숙 부군수는 "이번에 지원한 순찰 차량을 활용해 야간 범죄, 각종 사고 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대원 사기 증진 위한 삼계탕 대접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 관계자는 여성이용소방대(대장 허경이)에서 지난 11일 점심에 무더위에 지친 남원소방서 대원들을 위해 삼계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원여대는 소방대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정성으로 인삼, 대추 등의 각종 재료가 가득 들어간 삼계탕을 대형 솥에 직접 끓였으며, 더위를 날려줄 수박도 함께 준비해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b>전주매일</b>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6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

신평면 행복나눔협의체(공공위원장 염진선, 민간위원장 손완진)가 신평면 호암마을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들께 초복을 맞아 '따뜻한 식사 한 끼' 사업을 실시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반찬 나눔의 실력을 바탕으로 경로당에서 직접 닭죽을 끓여 무더운 여름철 기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호암마을은 농원과 두루 마을로 구성되어 거리 특성상 떨어져 있어 마을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 좋은 기회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 당부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22조(주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주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정읍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지난 11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3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장인 황동석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언론인·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2명, 절도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1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3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황동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